

칼 에밀 프란초스의 연극에 대한 관심과 그의 미출판 희곡 『그림자들』에 관한 연구*

임 종 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1

칼 에밀 프란초스 Karl Emil Franzos(1848~1904)는, 그의 문학과 생애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학위청구 논문과 소수의 개별적인 연구논문들이 2차대전 후 간헐적으로 출간된 것을 제외하면, 출생 150주년을 맞은 1998년에 이르기까지 독일어권의 독문학계에서조차 활발한 논의와 연구의 대상에 속하지 못하고 있는 작가들 중의 한 사람이다. 19세기에 출판한 업적만을 취급한 프란츠 브뤼머 Franz Brümmer의 『19세기 독일시인 및 산문작가 사전』에¹⁾ 등재된, 1800년대에 출생한 9900여 작가들 중에서 문학사에 언급되는 영광(?)을 누리는 이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문예학의 개입으로 ‘새로운’ 데뷔의 그 날을 기다리는 나머지 작가들은 여전히 독문학자들이 ‘재발굴’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남긴 작품들의 상이한 판본(板本)을 비교연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고(遺稿)와 대조하는 작업 Kollation이 요구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유고를 - 그것의 소재가 파악되어 있을 경우에는 - 해독하고 텍스트화하는 작업이 선행된 후에서야 비로소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후속적인 연구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프란초스의 작품들은 이 논문에서 다룬 미출판 희곡『그림자들 Die Schatten』과 수고(手稿)상태로 남아 있는 시집『젊은 시절의 노래들 Jugendlieder』²⁾을 위시한 소수의 원고를 제외하면 1905년까지 모두 출판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학사에서는 작가로서의 업적 보다는 1879년 독

* 이 논문은 1997년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자유공모)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1) Franz Brümmer: Lexikon der deutschen Dichter und Prosaisten vom Beginn des 19. Jahrhunderts bis zur Gegenwart. Sechste völlig neu bearbeitete und stark vermehrte Auflage. 8 Bde. Leipzig: Reclam[1913].
- 2) Siehe Jong-Dae Lim: Karl Emil Franzos als Lyriker. In Bezug auf seinen handschriftlichen Gedichtband "Jugendlieder". In: Dogilmunhak. Koreanische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Bd. 34. Seoul 1984(S. 341-372).

일문학사상 처음으로 게오르크 뷔히너 Georg Büchner의 작품전집³⁾을 출간한 프란초스의 문헌학적 업적이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뷔히너가 독일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히 독일희곡사에서 가지는 무게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프란초스는, 사망한 지 40여 년이 지나도록 독일어권의 독자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문단에조차 그 존재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뷔히너의 미완성 희곡 『보이체크 Woyzeck』⁴⁾를 그의 유고에서 현대 독일어로 해독하여 전집에 수록했다. 또한 프란초스가 집필하여 뷔히너전집에 수록된 방대한 양의 뷔히너전기 역시 다가올 ‘뷔히너 르네상스’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러나 프란초스는 ‘뷔히너 발굴자’로서 뿐만 아니라, ‘게토노벨레 Ghettonovelle’ 또는 ‘게토소설 Ghettoroman’⁵⁾ 작가로서 19세기 후반의 독일 산문장르, 특히 동시대의 독일 노벨레에 게토라는 새로운 ‘문학환경’을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사건’ 찾기에 고심하던 노벨리스트들에게 새로운 소재의 가능성을 함께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작가였다.

1848년 혁명의 와중에서 프란초스는 동(東)갈리시아 Ostgalizien의 작은 도시 초르트코프 Czortkow 근교에서 그 지역의 공의(公醫)였던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나 초르트코프의 수도원 부속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받았다. 당시 합스부르크제국의 부속령이었던 부코비나 Bukowina(현재의 우크라이나)의 수도 체르노비츠 Czernowitz의 국립 독일김나지움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을 끝낸 후 프란초스는 제국의 수도 빈 Wien으로 유학의 장도에 오른다. 훗날 오스트리아 다민족 국가는 부코비나 합병 100주년을 범제국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1875년 체르노비츠에 대학을 세우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프란츠 요셉 대학 Franz-Joseph-Universität」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제국은 독일어권에서 최고(最古)대학과 제국에 의해 설립된 최연소대학을 각각 프라하와 체르노비츠에 세움으로써 점령지의 정책을 교육을 통해서도 구현하려는 시도를 했던 셈이다. 체르노비츠에서 김나지움교육을 받았던 프란초스는 1875년

3) Georg Büchners sämtliche Werke und handschriftlicher Nachlaß. Erste kritische Gesamtausgabe. Eingeleitet und herausgegeben von Karl Emil Franzos. Mit Portrait des Dichters und Ansicht des Züricher Grabsteins. Frankfurt/M.: J. D. Sauerländer 1879.

4) 뷔히너의 미완성 시민극 『보이체크 Woyzeck』는 해독자인 프란초스에 의해 『보체크 Wozzeck』로 잘못 해독되어 1879년의 뷔히너전집에 수록되기 1년 전인 1878년 베를린의 문학잡지(주간) 「더 많은 빛!」에 실물크기로 소개된 바 있다. Siehe Georg Büchner: Wozzeck. Ein Trauerspiel-Fragment Mitgeteilt von Karl Emil Franzos. In: Mehr Licht! Eine deutsche Wochenschrift für Literatur und Kunst. 1(1878) Berlin, S. 5-7, 21-24 und 39-42[Nr. 1-3].

5) 유대인(사회)의 해방과 동화, 개혁파와 정통보수파 간의 선택, 외부로부터 게토에 가해지는 영향 또는 게토로부터의 탈출, 게토 내부의 시각으로부터 게토 외부환경에 대한 비판적 분석 따위를 주제로 다루면서 작품의 배경을 이루는 ‘환경’이 게토인 노벨레 혹은 소설을 일컬어 ‘게토노벨레’ 혹은 ‘게토소설’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줄고 「독일어권 게토문학의 생성배경」을 참조하시오(『삶과 學文. 청산 김재민 교수 추모논문집』. 서울: 삼영사 1986, 232쪽 이하).

체르노비츠대학 개교기념행사와 관련한 글을 노벨레 형식으로 「신자유신문 Neue Freie Presse」(이하 NFP로 표기)을 비롯한 빈의 일간지와 독일의 신문과 잡지의 문예란 Feuilleton에 기고하기도 했다.⁶⁾

1867년 19세의 나이에 초르트코프를 떠나 빈에 도착한 프란초스는 그러나 두 학기만을 빈대학에서 수학한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고자 그라츠 Graz대학으로 적을 옮겼다. 1868년부터 4년 동안 그라츠에서 법학을 전공한 프란초스는 1872년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법관자격을 획득했지만 1년 동안 시보(試補)기간을 거치면서 법관으로서의 장래가 그에게 적합치 않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문학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그의 혈통이 법관으로서의 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의 결단을 재촉했던 것이다. 유대인이면서도 그는 빈과 그라츠에서 학생조합 Burschenschaft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라츠시절에는 학생조합 「오리온 Orion」의 회장을 맡아 스스로 독일민족운동 Deutschnationale Bewegung에 간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그는 대학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대두되기 시작한 조직적인 유대인배척주의를 고통스럽게 체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작가로 독립할 수 있기까지 프란초스 역시, 데뷔단계의 여느 젊은 작가들처럼 국내외의 신문 문예란과 잡지에 기고함으로써 자신의 생계를 해결해야 했으며, 고향에 남아 있던 홀어머니와 결혼을 하지 않았던 두 누이동생의 뒤를 일생 동안 돌봐 주어야 했다. 그에게 작가로서의 독립과 대중적 성공을 동시에 안겨준 작품은 1876년에 두 권으로 출간된, 동구라파거주 소수민족들의 문화인류학적 특징들에서 소재를 취한 단편 모음집 『반아시아에서 Aus Halbasien』⁷⁾와 1877년에 간행된 노벨레 모음집 『바르노프의 유대인들 Die Juden von Barnow』⁸⁾이었다. 『반아시아에서』의 성공 이후 1884년까지도 서구라파의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테마였던 동구라파 소수민족집단 특유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예란 기사들이 NFP를 포함한 국내외의 일간지 문예란에 인기리에 개

6) 이와 관련하여 확인된 프란초스의 문예란기사는 다음과 같다.

Von Wien nach Czernowitz. Eine Kulturstudie im Fluge. In: Neue Freie Presse. 2. 10. 1875; Säkularfeier in Czernowitz. A. a. O.; Aus Czernowitz. In: Fremden-Blatt. Wien, 3. 10. 1875; Die neue Universitätsstadt Czernowitz. In: Über Land und Meer. 18(1875), S. 114f. 이 문예란 기사들은 ‘빈에서 체르노비츠까지 Von Wien nach Czernowitz’, ‘드니에스터강과 비스트리차강 사이 Zwischen Dniester und Bistritz’ 그리고 ‘어떤 문화축제 Ein Kulturfest’라는 제목으로 부분적으로 내용이 수정되어 프란초스의 첫 노벨레 모음집 『반아시아에서 Aus Halbasien』에 수록되었다. Siehe K. E. Franzos: Aus Halbasien. Kulturbilder aus Galizien, der Bukowina, Südrußland und Rumänien. 4. Aufl. Bd. 2. Stuttgart u. Berlin: Cotta(1901), S. 189ff., S. 206ff. u. S. 226ff. (1876¹).

7) K. E. Franzos: Aus Halb-Asien. Kulturbilder aus Galizien, der Bukowina, Südrußland und Rumanien. 2 Bde. Leipzig: Duncker u. Humblot 1876.

8) K. E. Franzos: Die Juden von Barnow. Novellen. 1. Aufl. Stuttgart u. Leipzig: Hallberger 1877.

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후, 프란초스는 - 슈테판 츠바이크 Stefan Zweig도 훗날 비슷한 고백을 했듯이 - <명망있는 지역명사가 되어버리는 위험 Gefahr, eine angesehene lokale Respektperson zu werden>⁹⁾을 피하기 위해 '문예란전문작가 Feuilletonist'라는 인상을 지우려고 애를 쓰기도 했다.

[...] 1876년까지 나는 주로 신문 문예란과 노벨레를 써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널리즘 활동이 내가 하는 이런 일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저서 『반아시아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1876년부터 나는, 그 이후 무엇인가 꼭 할 말이 있을 때 예외적인 복귀가 없지는 않았습디만, 서서히 문예란 기사 쓰는 일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 bis 1876 habe ich mich hauptsächlich durch das Schreiben von Feuilleton und Novellen ernährt. Ich glaube nicht, daß man unter journalistischer Tätigkeit gerade diese von mir verübte versteht. Seit 1876, wo ich durch den Erfolg meines Buches "Aus Halb-Asien" materiell gesichert war, zog ich mich allmählich von der feuilletonistischen Tätigkeit zurück, zu der ich seither nur ausnahmsweise zurückgekehrt bin; nur soweit, als ich eben etwas zu sagen hatte.¹⁰⁾

작가로서의 프란초스의 삶은 대학을 졸업한 해인 1872년부터 베를린으로 이주하기까지의 빈시대(1873~1887)와 그 이후의 베를린시대(1887~1904)로 양분할 수 있다. 빈시대에 대해 특히 언급되어야할 점은 영국의 「타임즈 Times」에 비교할 수 있는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이중왕국 Österreichisch-ungarische Monarchie의 최대 일간지 「신자유신문」(NFP) - 이 신문은 조석간으로 발행되었다 - 과의 만남이다. 프란초스의 첫 기고는 문학작품이 아닌, 1872년에 문을 연 슈트라쓰부르크대학의 개교기념 행사에 관한 문예란 기사였다.¹¹⁾ 청년작가로서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신자유신문」과 문학적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던 슈테판 츠바이크 Stefan Zweig가 1941년,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오래전부터 정중한 예우를 받고 있는 '문예란기고작가'들 한가운데 새로운 이름이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 제1면에 글을 쓴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대리석에 새긴 것이었다. [...] wenn einmal ein neuer Name

9) Stefan Zweig: Die Welt von gestern. Erinnerungen eines Europäers. Frankfurt a.M.: Fischer 1979 [=Fischer Taschenbuch 1152], S 88

10) Siehe I. N. [=Inventur-Nummer]_55. 756 der HWSLB[=Handschriftensammlung der Wiener Stadt- und Landesbibliothek]: Kopierbuch der Briefe von Karl Emil Franzos vom 30. 9. 1890 bis 3. 11. 1891, S. 75-80. Ein Brief von Franzos an einen Unbekannten, datiert: 25. Oktober 1890. Zit. nach: Jong-Dae Lim: Das Leben und Werk des Schriftstellers Karl Emil Franzos. Diss. [Masch.] Wien 1982, S. 485.

11) K. E. Franzos: Die Eröffnungsfeier der Straßburger Universität. In: Neue Freie Presse. 2. 5. 1872.

inmitten der längst respektvoll anerkannten “Feuilletonisten” auftauchte, bedeutete dies ein Ereignis. [...] Wer auf der ersten Seite schrieb, hatte seinen Namen [...] in Marmor gegraben.>¹²⁾라는 말로써 당시의 문단에 대한 이 신문의 영향력과 권위를 증명해 준 일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직 ‘프란초스’라는 이름이 문학시장에서 알려진 상표는 아니었지만 예의 ‘사건’은 ‘게토작가 프란초스’에게는 그 후 지속될 ‘신자유신문’과의 인연의 단초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1874년 4월 22일 「폴란드유대인 Judische Polen」을 필두로 해서 1884년 1월 17일과 18일 2회에 걸쳐 실린 「한 불행한 여인 Eine Unglückliche」에 이르기까지 NFP의 문예란을 통해서 이 신문의 구독자들에게 미리 선보였던 총 18편의 중단편 게토노벨레들은 언급한 그의 두 권짜리 첫 노벨레 모음집 『반아시아에서』와 1878년에 출판된 『돈강에서 도나우강까지 Vom Don zur Donau』,¹³⁾ 그리고 1888년의 『대평원으로부터 Aus der grossen Ebene』에¹⁴⁾ 수록되어 프란초스를 동구라파 전문가 내지는 게토소설가로 불리우게 만들었다. 프란초스가 이 신문의 문예란에 기고한 마지막 글은 사망하기 2개월 전에 쓴 하이네히 하이네에 관한 에세이였다.¹⁵⁾ 1874~1903까지 30년 간 위의 18편의 게토노벨레를 포함하여 총 58개의 크고 작은 작품들이 NFP의 문예란을 장식했다. 그 중에는 141회 연재된 장편소설 『권리를 위한 투쟁 Ein Kampf ums Recht』¹⁶⁾과 58회 연재된 노벨레 『운명으로서의 여행 Die Reise nach dem Schicksal』¹⁷⁾도 끼어 있다.

합스부르크제국의 동쪽 변방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소수민족들, 특히 게토유대인들

12) S. Zweig, Die Welt von gestern, S. 81.

13) K. E. Franzos: Vom Don zur Donau. Neue Kulturbilder aus Halb-Asien. 2. gänzlich umgearbeitete u. vermehrte Auflage. Stuttgart u. Berlin: Cotta 1889(1878¹).

14) K. E. Franzos: Aus der großen Ebene. Neue Kulturbilder aus Halb-Asien. 2 Bde. Stuttgart: Bonz 1888.

15) 게오르크 뷔히너에 관한 연구외에 하이네 연구자로서도 프란초스는 많은 기여를 했다. 1880년 4월에 쓴 그의 첫 하이네에 관한 논문 「케른텐에서의 하이네Heine in Kärnten」(Siehe “Die Gegenwart”. Jg. 1880, Bd. 18, S. 248f)에서부터 1903년 11월 22일 NFP에 실린 마지막 평론(Heine und die Mutter Meyerbeers. Mit einem ungedruckten Briefe Heinrich Heines)에 이르기까지 프란초스는 하이네에 관한 20편 이상의 에세이를 남겼다. 그 중에서 그 당시까지 아직 불확실했던 하이네의 생년월일을 처음으로 확인해 낸 에세이인 「하이네의 생일 Heines Geburtstag」은 1900년에 먼저 잡지 「독일문학」에 실렸다가 소책자로도 출판되었다. Siehe K. E. Franzos: Heines Geburtstag. Deutsche Dichtung. 27(1900), S. 113-120.

16) K. E. Franzos: Ein Kampf ums Recht. Roman. Breslau: Schottländer 1881. 이 소설은 1880년 8월 3일(Nr. 5723)부터 1880년 12월 24일(Nr. 5864)까지 NFP의 문예란에 연재되었다.

17) K. E. Franzos: Die Reise nach dem Schicksal. Erzählung. Leipzig: Duncker u. Humblot 1885. 이 소설은 1884년 7월 17일부터 1884년 9월 14일까지 58회 연재되었으며, NFP에 연재될 당시에는 노벨레라는 장르명칭을 달고 있었다.

에게 서구라파문화를 소개하고 그들을 서구라파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우선 계토의 실상을 서구라파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프란초스는 판단했다. 계토를 소재로 한 그의 작품들은 - 새로운 소재를 의도적으로 다룸으로써 - 19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자들의 대변지로 인정받던 NFP의 편집방향과 부합했으며, 프란초스는 일약 가장 많은 원고료를 받는 작가의 반열에 서게 된다.¹⁸⁾ 뿐만 아니라 <반아시아>라는 영역의 개념은¹⁹⁾ 이후 뷔히만 Büchmann의 『명언집 Geflügelte Worte』에 표제어로 수록되었는가 하면²⁰⁾ 베를린의 한 주간 문학잡지(Magazin für die Literatur)는 1880년 이후 <반아시아>라는 제목의 고정칼럼을 신설하기도 했다.²¹⁾

칼 에밀 프란초스의 베를린시대는 공교롭게도 독일어권에서 조직적인 유대인배척주의 Antisemitismus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프란초스가 남긴 계토소설중에서 ‘서사의 폭 epische Breite’이 가장 넓은 작품인 『어릿광대 Der Pojaz』가 완성된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작품은 주제적으로 계토와 계토유대인, 계토와 외부세계간의 긴장관계 등을 다룸으로써 ‘현실’과의 관련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소설이다. 계토문학은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²²⁾ 역사소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가장 번성했던 장르인 노벨레 혹은 소설과 같은 서사문학의 장르를 표현양식으로 택했다. 프란초스 자신이 이 소설의 서문에서 <노벨

18) 『반아시아에서』(1876) 이후 프란초스는, 독일문학사상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였던 하 이제 Paul Heyse(1830~1914)보다 1.5배 더 많은 원고료를 받았던 작가였다. Siehe hierzu Walter Krieg: Materialien zu einer Entwicklungsgeschichte der Bücher-Preise und des Autoren-Honorars vom 15. bis zum 20. Jahrhundert. Wien(u. a.): Stubenrauch 1953, S. 163.

19) 18/19세기 동구라파의 대부분의 지역의 경제구조는 농경위주였고 유대인들을(오스트리아 제국의 유대인 중 2/3가 갈리시아에 거주했음) 포함한 이 지역 거주민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중세 봉건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이 지역의 공업화 노력은 19세기 말에 가서야 시작될 수 있었는데, 그것도 프란초스의 고향인 동갈리시아가 아닌 서갈리시아에서였다. 프란초스에 의해 <반아시아 Halb-Asien>로 명명된 지역은 특히 갈리시아를 포함해 부코비나(현재는 우크라이나), 남러시아 및 루마니아였다.

20) Georg Büchmann(Hrsg.): Geflügelte Worte. Der Zitatenschatz des deutschen Volkes. Gesammelt u. erläutert von G. B. Fortgesetzt v. Walter Robert-Tornow. 21. Aufl. Bearbeitet v. Eduard Ippel. Berlin: Haude 1903, S. 303.

21) Siehe hierzu auch I. N. 62. 394 der HWSLB: Brief von Eduard Engel an Franzos, datiert: Berlin, 6 April 1880 (Engel leitete die Redaktion des "Magazins für die Literatur" vom 1. 10. 1879 bis Ende 1883).

22) 독일어권의 계토문학은 1848년 독일시민혁명과 때를 같이 하여 출현했다가 19세기말을 전후한 시기에 그 모습을 감추었다. 콤포르트 Leopold Kompert(1822~1886)의 『계토로부터 Aus dem Ghetto』(1848)가 계토문학의 시작이었다면, 이미 제목속에 주제가 나타나 있는 아르투어 칸 Arthur Kahn의 『사라지는 모습들 Entschwindende Gestalten』(1905)은 이 장르의 종말을 확인해주는 소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줄고 「계토소설 『포야츠』에 관한 연구」(실린 곳 : 一淸姜斗植교수화갑기념논총. 민음사 1987) 578쪽 및 580쪽을 참조하시오.

레는 극히 제한된, 그것도 공간을 통해서 뿐 아니라 문제점을 통해서도 제한된, 특정한 인생의 한 단면만을 서술하고 있다 Die Novelle schildert einen eng begrenzten, und zwar nicht bloß durch den Raum, sondern auch durch das Problem begrenzten Ausschnitt aus einem bestimmten Leben>²³⁾라고 말하고 있듯이 노벨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쓰여진 작품이 『어릿광대』이었으며 저자가 <장편소설 Ein Roman>이라고 적시한 유일한 작품이 또한 『어릿광대』이기도 하다.

프란초스의 노벨레가 사건을 부각시키는데 적합한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것과는 달리 『어릿광대』는 <있는 힘을 다해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고뇌에 찬 투쟁을 하는 der mit Aufgebot aller Kräfte leidvoll nach einem hohen Ziel ringt>²⁴⁾ 한 유태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성장과정을 그린 계토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Roman>²⁵⁾ 그것도 주인공의 성장환경이 계토인 최초의 ‘계토 교양소설’이다. 1893년에 완성된 이 소설은 1년 후 독일어가 아닌 러시아어로 번역, 출판됨으로써 번역판이 원본보다 먼저 출판되는 기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는, 1930년대의 NS 정권의 출현을 가능케 한 일련의 조짐들이 이미 1890년대부터 그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언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어릿광대인 주인공의 이름을 따 『젠더 글라트트 아이스 Sender Glatteis』라는 제목으로 페터스부르크의 주간문예지 『바스호트 Woschod』에 1894년 1월부터 2년간 연재되었다. 10년 후 프란초스는 56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고 그 이듬 해인 1905년에야 비로소 이 소설은 코타 Cotta출판사에 의해 세상빛을 보게 되었으며 1923년에 제22판이 인쇄되었다. 노벨레 모음집들인 『약삭 빠르지 못한 사람들 Ungeschickte Leute』(1893)과 『남과 여 Mann und Weib』(1899)에 수록된 일부 노벨레 작품들과 월간지 『벨하젠과 클라징 Velhagen und Klasings Monatshefte』에 실렸던 소설 『소년 마틴 Der kleine Martin』(1895)을 제외한, 1890년 이후 완성된 모든 작품들은 - 70년대와 80년대에 쓰여진 작품들의 출판경로와는 판이하게 - 프란초스에 의해 발행된 『독일문학 Deutsche Dichtung』(이하 DD로 표기) 이외의 잡지나 신문들에 의해서는 연재를 거부당했었다. 프란초스의 유고에 남아 있는 원고료 수입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소설작품 한 편이 가져다 주는 총수입 중에서 일간지에 미리 소개됨으로서 발생하는 연재료수입이 50 퍼센트 내외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프란초스가 유태인작가이었기 때문에 입어야 했던 재정적 피해는 가히 짐작할 만하다.²⁶⁾ 특히 유태적인 요소가 감지되는 작품들은, 1880년대

23) K. E. Franzos: Der Pojaz. Eine Geschichte aus dem Osten. Mit Bildnis. 13-17. Aufl. Stuttgart u. Berlin: Cotta 1920, S. 12.

24) Franzos: Der Pojaz, S. 15

25) Siehe I. N. 82. 613 der HWSLB: Brief von Franzos an Adolf Kohut, datiert: Wien, 31. Dezember 1886. 코후트는 헝가리 태생의 유태인작가로서 주로 산문문학 분야에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줄고 『계토소설 『포야츠』에 관한 연구』 583-584쪽 참조.

26) 1880년에 NFP에 연재되었다가 1881년 독일의 Schottländer사에 의해 2권의 단행본으로 출

말까지도 그러한 작품들을 기꺼이 채택했던 잡지와 신문에 의해서도 거부되기 시작했다. 1874년 이후 프란초스의 작품을 실어왔던 슈투트가르트의 주간문학지 「육지와 바다를 건너 Über Land und Meer」도 그러한 잡지 중의 하나였다. 에버스 Georg Ebers가 프란초스에게 보낸 1893년 7월 11일자 서한에는 이 잡지가 유태인배척주의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잡지가 실는 모든 기고작품은 감시당하고 있으며, 단지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친유태주의의 맛을 풍기는 요소를 담고 있으면 그 즉시 원성과 협박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Jeder Beitrag, den das Blatt[="Über Land und Meer"] bringt, wird überwacht, und sobald er etwas enthält, was nur von Form nach Judenfreundlichkeit schmeckt, gibt es Reprimanden und Drohungen zu hören.²⁷⁾

프란초스의 베를린시대는, 그가 1886년 10월에 창간한 격주간 순수문학잡지 「독일 문학」의 존속기간과 일치한다. 프란초스가 빈에서 베를린으로 이주한 해가 1887년이었고 그가 사망한 1904년에 「독일문학」도 그의 운명을 따랐으니 말이다. 격동하는 세기전환기의 독일문단에서 DD가 보수지(保守誌)로서 독일문학에 기여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하게 연구, 보고된 바가 있다.²⁸⁾ 여기서는 다만 일련의 젊은 시인들이 이 잡지를 통해서 문단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만 언급하고자 한다. 프란츠 긴츠키 Franz Ginzkey, 크리스티안 모르겐슈테른 Christian Morgenstern 그리고 슈테판 츠바이크 등이 그들이다.

1904년 56세의 나이로 타계한 후, 여러 출판사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던 칼 에밀 프란초스의 작품의 출판권은 그의 아내이자 작가인 오틀리에 프란초스 Otilie Franzos²⁹⁾

간된 『권리를 위한 투쟁』의 경우 프란초스가 벌어들인 총액 14,958 마르크(8,628 굴덴) 중에서 NFP와 독일어판 「뉴욕신문 Neu Yorker Zeitung」 연재료조로 수령한 금액은 8,385 마르크이었으며, 이 금액을 오스트리아 통화로 환산하면 4,883 굴덴이었다. 이에 비해 1881년 이 소설을 단행본으로 출판해 준 브레스라우 Breslau의 쇼트랜더사로부터 5,500 마르크(3,135 굴덴)을, 덴마크어로 번역 출판한 코펜하겐의 샤프테 J. H. Schabotte사로부터 프란초스는 1,063 마르크(610 굴덴)을 각각 수령하였다 Siehe I N. 55. 767 der HWSLB: Eigenhändiges Honorarbuch von Franzos.

27) I. N. 59. 668 der HWSLB: Brief von Georg Ebers an Franzos, datiert: Tutzing bei Munchen, 11. Juli 1893.

28) 필자의 출고 「문학잡지 「독일문학」에 관한 고찰」(실린곳 : 『이귀경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서울: 삼영사 1993, 375-399쪽 참조).

29) Otilie Franzos(geb. Benedikt, 1856~)는 노벨레 모음집 『입양아 Das Adoptivkind』(1896), 소설 『침묵 Schweigen』(1902) 등을 남겼으며, 특히 「독일문학」지에 F. Ottmer라는 필명으로 서정시와 산문작품을 기고한 흔적이 남아있다.

의 개입으로 코타출판사로 모두 넘어갔다. 국가사회주의가 공식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만 해도 프란초스의 작품들은 선별적으로 코타사에 의해 출간되었다.³⁰⁾ 그러나 NS정권이 독일을 완전히 장악한 후 프란초스의 작품들은 유대인 혈통의 수많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과 같은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국가사회주의 정권은 유대인작가들을 금지작가로, 그들의 작품은 금독도서로 분류하고 분서(焚書)대상 서적으로 낙인찍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프란초스의 작품선집이 베를린의 유대계 출판사인 쇼켄 Schocken사에 의해 출판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저항운동이 출판계 내부에서도 전개되었음을 증언해 주는 한 예이겠지만,³¹⁾ 일반 서적시장에서 그들의 작품은, 거래는 말할 나위도 없고 재판인쇄도 철저히 감시당했다. 「빈 시립도서관 Wiener Stadt- und Landesbibliothek」에 소장되어 있는 프란초스의 작품분류카드의 오른쪽 상단에 연필로 그려져 있는 - 분서대상 서적을 구별하기 위한 - ‘유대인별 Judenstern’ 표시는 제3제국의 시기에 유대계 독일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이 어떤 운명 속에 놓여 있었던가를 말해주는 생생한 전거이다. 더욱이 동구라파 유대인의 문화와 생활상, 더 구체적으로 말해 유대정교 Orthodox-Judentum와 하시디즘 Chassidismus 간의 긴장관계 혹은 하시디즘과 관련한 갈리시아유대인의 문화를 소재로 취급한 프란초스의 작품들은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나치시대의 반인류적 문화정책으로 인해 거의 완벽하게 파괴당해야 했던 동구유대인문화에 대한 산 증인이다.

프란초스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인 동구라파 갈리시아의 유대인문화를 서술한 노벨리스트로 문단에 데뷔했었다. 그리고 그는 동구라파 유대인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태생적 애정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였다. 그로 하여금 게토문화의 서술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만들어 준 그의 첫 노벨레 모음집 『반아시아에서』와 사후(死後) 1년 뒤에 출판된 그의 유작(遺作) 『어릿광대』가 그 증거들이다.

2

게토노벨레와 게토소설을 가지고 등단하여 산문작가로서의 위치를 굳힌 프란초스는 그의 생의 제2기라 할 베를린시대에는 극작가로서의 가능성에도 도전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프란초스의 창작희곡은 『재판장 Der Präsident』과 『그림자들 Die Schatten』, 두 편이다. 이 중에서 전자만이 작가 생존시에 공연되고 출판되었다. 『재판장』은 1891년 베를린의 「레싱극장 Lessing-Theater」에서 상연되었으며 1년 후인 1892년에 잡지 DD에 연재되었다.³²⁾ 1926년 이후 「빈 시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30) 예컨대 1905년에 초판이 인쇄되었던 교양소설 『어릿광대 Der Pojaz』의 제17판이 1920년에, 3년 후인 1923년에는 제22판이 코타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31) Siehe Karl Emil Franzos: Eine Auswahl aus seinen Schriften. Hrsg. v. Jenny Radt. Berlin: Im Schocken Verlag 1937[=Jüdische Lesehefte 18].

프란초스의 유고에는 그 외에도 『성스러운 순진 Die heilige Einfalt』이라는 제목의 미완성 희곡³²⁾과 러시아어와 폴란드어로부터 프란초스가 직접 번역한 희곡이 각각 한 편씩 남아 있다. 유명한 폴란드 희극작가인 프레드로 Alexander Graf Fredro(1793~1876)의 희극 『기습당하다! Überfallen!』와³⁴⁾ 고골리 Nikolai Wassiljewitsch Gogol(1809~1852)의 희극 『검찰관 Der Revisor』이 그것들이다.³⁵⁾

프란초스가 남긴 두 편의 희곡의 공통점은, 두 작품 모두 이미 출판된 동명의 소설을 희곡화했다는 점이다. 『재판장』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레싱극장」에서 초연된 바로 그 해, 프란초스는 그의 게토소설 『유디트 Judith Trachtenberg』³⁶⁾를 희곡으로 개작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받는다.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한 작가 골드슈미트 Henriette Goldschmidt는 소설 속에 묘사된 유태인의 결혼풍속이 무대위에서의 재현을 통해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신의 유디트 트라하텐베르크를 읽고 저는 아직도 당신의 이 최근작품으로 부터 받은 감명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이 작품을 희곡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지 않았다면 저의 존경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찮은 저의 견해로는 무대로부터 훌륭한 효과를 행사할 수 있을 모든 계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주인공 유디트로 하여금 세례를 받기 전에 - 이 세례는 진짜 세례입니다³⁷⁾ - 좀 더 많은 내면적 갈등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태껏 우리들이 어떤 드라마에서도 가지지 못한 유태인입니다. 구츠코의 『우리엘 아코스타』³⁸⁾의 유디트는 우연히 유태인입니다. 그리고 모젠탈의 『데보라』³⁹⁾는 유감스럽

32) Karl Emil Franzos: Der Präsident. Drama in fünf Akten. In: Deutsche Dichtung. 13(1892/1893), S. 191-198ff.

33) Siehe I. N. 113. 583 der HWSLB: Eigenhändiges Fragment eines Dramas, undatiert, betitelt:

“Die heilige Einfalt. Schauspiel in vier Aufzügen von K. E. F.” 86 Seiten(82 Blatt).

34) Siehe I. N. 113. 443 der HWSLB: Manuskript von fremder Hand mit eigenhändigen Korrekturen mit Bleistift, einer Übertragung eines Lustspiels von Alexander Graf Fredro aus dem Polnischen, undatiert, betitelt: “Überfallen!”. 149 Seiten(77 Blatt).

35) Siehe I. N. 55. 748 der HWSLB: Theatermanuskript von fremder Hand, undatiert, betitelt: Der Revisor. Lustspiel in drei Akten. “Frei nach dem Russischen des Nikolai Gogol von Franzos”(Titel und Personen eigenhändig). 137 Seiten.

36) Karl Emil Franzos: Judith Trachtenberg. Erzählung. Breslau: Trerwendt 1891. 이 소설의 제12판은 1921년 슈투트가르트의 코타사가 출판했다.

37) 소설에서 폴란드인 백작 브라놉스키는 유디트와의 결혼을 위해 그녀로 하여금 가짜목사로 부터 세례를 받게 한다. 그러나 후일 잘못을 뉘우친 그는 유디트에게 진짜세례를 받도록 주선하지만 유디트는 신앙은 몸에 걸치는 <[...]의복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이어서 그것을 갈아입지는 못한다 [...]kein Gewand, sondern die Seele selbst, und die wechselt man nicht>고 저항한다. Siehe Franzos, Judith Trachtenberg, S 188.

38) 구츠코 K. F. Gutzkow의 희곡 『우리엘 아코스타 Uriel Acostta』는 1847년 구츠코가 당시 희곡주임으로 근무한 드레스덴의 「궁정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게도 - 변태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 광포한 광신과 어리석은 감상이 혼합된 잡것입니다. 저는 당신에 의해 설계된 생명력 넘치는 그림들을 관객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실제의 모습처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예술적 행위임은 물론이고, 도덕적 행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대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몇 가지는 물론 변경되어야 하겠지요. 예컨대 결혼식이나 결혼을 드라마에서는 바이마르에서⁴⁰⁾ 거행하게 해서 는 안되겠지요.

Ich habe Ihre Judith Trachtenberg gelesen und stehe noch ganz unter dem Eindruck dieser, Ihrer jüngsten Schöpfung. Schwerlich aber hätte ich den Empfindungen dankbarer Verehrung Ausdruck verliehen, wenn mich nicht der Gedanke beschäftigt, "diese lebensvolle Erzählung müßte dramatisiert werden". Meiner, allerdings unmaßgeblichen Meinung nach, sind hier alle Momente vorhanden, um eine bedeutende Wirkung von der Bühne aus - auszuüben. Die Heldin, Judith sollte vor der Taufe, die für sie eine wirkliche ist - etwas mehr inneren Zwiespalt fühlen - aber sie ist doch eine Jüdin, wie wir sie bis jetzt in keinem Drama haben. Gutzkow's Judith in Uriel Acosta ist zufällig Jüdin - und Mosenthal's Deborah ist leider ein Mist - um nicht zu sagen Spottgeburt - von tollem Fanatismus und blöder Sentimentalität. Ich betrachte es als eine sittliche, nicht nur als eine künstlerische Tat, das von Ihnen entworfene lebensvolle Gemälde dem Publikum so deutlich und so leibhaftig vorzuführen, wie es nur auf der Bühne geschehen kann. Mancherlei müßte ja geändert werden - so dürfte wohl das Drama die Hochzeit oder Trauung in Weimar nicht bringen.⁴¹⁾

소설 『유디트』의 희곡본은 프란츠스의 유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골드슈미트의 말처럼 <광신적>이지도 않고 <어리석은 감성>에 사로잡히지도 않는, 교양을 갖춘

39) 모젠탈 Salomon Hermann Mosenthahl(1821~1877)의 민중극 『대보라 Deborah』는 1848년 빈의 「궁정극장 Hofburgtheater」에서 공연되어 모젠탈의 이름을 전 독일어권에 알렸다. 그리고 이 작품은 체르노비츠 김나지움시절 프란츠스가 체험한 최초의 연극이기도 했다. Vgl. K. E. Franzos: Mein Erstlingswerk: Die Juden von Barnow. In: Die Geschichte des Erstlingswerks. Eingeleitet von K. E. F. Leipzig: Titze 1894, S. 227.

40) 기독교인(남)과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여)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민간결혼법이 - 이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는 기독교세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 1823년 유럽에서는 작센 바이마르대 공국 Großherzogtum Sachsen-Weimar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종교적 감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모든 도덕적 감정이 훼손되어버렸다 alle sittlichen Gefühle, die doch durchaus auf den religiösen ruhten, [wurden] untergraben>고 추밀고문관 피테가 이 법령에 반응을 보였음은 특기할만 하다고 하겠다. Zitiert aber nach Ismar Elbogen und Eleonore Sterling: Die Geschichte der Juden in Deutschland. Eine Einführung. (Frankfurt):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66), S. 195.

41) I. N. 12. 5820 der HWSLB: Brief von Henriette Goldschmidt an Franzos, datiert: Leipzig, 16. Dezember 1890.

유태인여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독일드라마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란초스로서는 이 소설을 드라마화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작업은 무대공연을 염두에 두었을 때만 가능한데, 시대상황이 유태인을 미화한 작품의 공연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도 프란초스 자신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

희곡작가로서의 프란초스의 업적을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설을 드라마화한 두 편의 희곡작품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라마에 대한 그의 탁월한 감각은 뷔히너의 ‘재발견’에 그가 기여한 일련의 문학사적 업적과 하우스프트만의 초기드라마의 공연평에서 이미 인정받은 바 있다. 뷔히너의 작품전집⁴²⁾ 발행과 특히 그 당시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뷔히너의 비극 『보이체크』의 육필원고의 해독은 독일문학사에서도 접하기 힘든 문예학적 업적에 속한다. 『보이체크』 원고의 해독결과는 1879년 프랑크푸르트의 자우어랜더 Sauerländer사에서 발간된 뷔히너전집에 수록되기 전, 빈과 베를린에서 각각 한 차례씩 문단에 보고되었다. 우선 1875년 빈의 일간지 NFP의 문예란에 3회에 걸쳐 발췌형식으로 소개된 후⁴³⁾ 전집출간 1년 전인 1878년 1월 1일에 창간된 베를린의 주간문예지 「더 많은 빛 Mehr Licht!」에 전문(全文) 인쇄된 바 있다.⁴⁴⁾

뷔히너의 미완성 시민비극 『보이체크』가, 그가 출생했고 사망한 19세기를 넘기지 않고 문단과 독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은 - 어떤 종류의 폄하성 주장에도 불구하고⁴⁵⁾ - 프란초스 개인의 노력과 좋은 희곡을 판별할 줄 알았던 그의 탁재(卓才)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프란초스가 그 당시 뷔히너의 재발굴 작업에 얼마만큼이나 헌신적이었는지⁴⁶⁾, 지난 세기의 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작가들 사이에서 조차

42) 각주 3번 참조.

43) Karl Emil Franzos: Aus Georg Büchners Nachlaß. In: Neue Freie Presse. 3., 5. und 23. 11. 1875(Nr. 4020, 4022 u. 4039).

44) 각주 4번 참조.

45) 뷔히너의 육필원고의 해독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프란초스가 사용한 화학적 방법을 비판한 게오르크 비트콥스키 Georg Wittkowski는, 그 때문에 원고의 일부가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으나(Georg Wittkowski: Büchners ‘Woyzeck’. In: Inselschiff 1(1919/1920), S. 21) 그후 한스 마이어 Hans Mayer의 개입으로 이 주장은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증명된 바 있다(Hans Mayer: Georg Büchner und seine Zeit. Frankfurt a. M.: Suhrkamp 1972, S. 484).

46) 뷔히너전집의 출판사인 자우어랜더社가 전집발간 준비작업에 대한 사례와 전집에 수록된 방대한 분량의 뷔히너전기 집필에 대한 원고료로 프란초스에게 지불한 금액은 1877. 8. 30일의 400마르크, 1879. 10. 12일의 100마르크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줄고 「뷔히너 작

뷔히너가 얼마나 과소평가되고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베를린에서 활동한 작가 한스 홉펜 Hans Hopfen (1835~1904)이 프란초스에게 보낸 1876년 4월 28일자 서한에서 알 수 있다.

지난 번 편지를 가지고서도 당신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 저서의 서평을 오이도 시어빠지는 절기로 미루려고 하는 것을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의 가족을 제외하면 당신이 어느 누구도 즐겁게 만들 수 없는 뷔히너와의 헛수고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의 고상하고도 민감한 예술적 재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간과 정력과 취미마저 빼앗아 버리는, 이와 같은 야성적 천재에 대한 거의 무절제한 몰입을 나는 불행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Mit Ihrem letzten Briefe haben Sie mir keine Freude gemacht. Ich finde es ganz unverzeihlich, die Besprechung meines Buches in die sauerste Gurkenzeit verschieben zu wollen und nur gar wegen der Danaidenarbeit mit Ihrem Büchner, mit der Sie außerhalb seiner Familie kaum jemand Freude machen werden. Für die künstlerische Entwicklung gerade Ihres schönen und zarten Talentes halt' Ich die zeit-, kraft- und geschmackraubende, fast ausschließliche Beschäftigung mit solch einem wilden Genie für nicht viel weniger als ein Unglück.⁴⁷⁾

연극평론가로서의 프란초스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젠가 중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겠지만 여기에서는 그가 경영한 잡지 DD에 1895년 이후 신설된 「베를린의 연극 Berliner Theater」이라는 고정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프란초스 자신이 기고한 연극평론 중에서 청년 하우프트만과 연관된 부분만 잠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독일자연주의의 '문학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의연하게 보수문학의 수호지를 자임했던 잡지 DD의 발행인이자 편집자였던 프란초스가 전통문학의 수호자로만 남아 있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하우프트만 옹호'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 이 시대의 가장 진보적인 연극비평가 중의 한 사람이었던 알프레드 케어 Alfred Kerr(1867~1948)와 더불어 프란초스는 '하우프트만 찬미자'의 한 사람이었다. 「베를린의 연극」에서 프란초스는 1895년 이후 이 도시에서 초연된, 특히 - 독일자연주의 드라마에 공연의 기회를 열어 준 극단 「자유무대 Freie Bühne」와 베를린 자연주의작가들의 기관지 역할을 자임했던 잡지 「자유무대」의 초대 총재와 편집책임역을 각각 맡았던 - 독일자연주의 연극의 대부(代父) 오토 브람 Otto Brahm이 극장장이던 「독일극장 Deutsches Theater」에서 초연된 하우프트만의 모든 연극작품을 관람하고

품의 출판사(出判史) - 보이체크의 텍스트 형성을 중심으로 하여,(실린 곳 : 뷔히너문학연구. 한국 뷔히너학회편. 문학과 지성사 1990년), 224쪽 참조.

47) I. N. 62. 105 der HWSLB: Brief von Hans Hopfen an Franzos, datiert: Berlin, 28. April 1876. 그리고 필자의 줄고 「뷔히너 작품의 출판사」, 224쪽 참조.

이제 막 등단한 젊은 작가에게서 독일연극의 새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다. 『플로리안 가이어 Florian Geyer』, 『침종 Die versunkene Glocke』, 『마부 헨셸 Fuhrmann Henschel』, 『슐룩과 야우 Schluck und Jau』, 『미하엘 크라머 Michael Kramer』 등은 1895~1901년 사이에 「독일극장」에서 공연되었고 프란초스에 의해 그 공연평이 잡지 DD에 실리게 된 드라마들이다.⁴⁸⁾

잡지 「독일문학」이 지난 세기 후반 가장 즐겨 읽었던 장르인 노벨레와 에세이의 게재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은 여타 문학잡지나 가정잡지 Familienblättr에서 볼 수 있는 편집방향이다. 그러나 1848년 이후 일간지의 문예란은 물론이고 잡지들로부터도 점차 외면당하기 시작한 장르인 운문서사시 Versepos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게재된 작품에 대해서는 다른 잡지에 비하여 다소 ‘과격적인’ 고료를 지불했다는 사실은 DD의 보수성을 대변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⁴⁹⁾ 프란초스의 희곡문학에 대한 유별난 애정은 DD의 경영방침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DD는 잡지가 존속하는 동안 변함없이 드라마를 게재해 준 극소수의 문학잡지에 속했으며, 그 뿐만 아니라 프란초스의 표현을 빌리면, 채택된 드라마에 대해 원고료를 지불한 <유일한> 잡지였다.⁵⁰⁾ 제1권(1886/1887)에서부터 마지막 책인 제35권(1903/1904)에 이르기까지 매권마다 드라마가 인쇄되었으며 우연히도 제1권에 소개된 첫 희곡이 단막으로 처리된 아돌프 뵐브란트 Adolf Wilbrandt의 희곡이었는데⁵¹⁾, 발행인 프란초스의 죽음으로 인해 발행이 중지된 DD의 마지막 드라마도 극작가 뵐브란트의 마지막 작품인 5막 비극 『테야 왕 König Teja』 이었다.⁵²⁾ 이러한 사실은 - 우연의 일치임을 감안하더라도

48) Florian Geyer, DD 19(1895/1896), S. 200-204; Die versunkene Glocke, a. a. O., 22(1897), S. 54f.; Fuhrmann Henschel, a. a. O., 25(1898/1899), S. 101-104; Schluck und Jau, a. a. O., 28(1900), S. 29-31 u. 53-55; Michael Kramer, a. a. O., 29(1900/1901), S. 249-251.

49) Siehe I. N. 111. 799 der HWSLB: Brief von Franzos an einen unbekanntem Mitarbeiter der “Deutschen Dichtung”, datiert: Wien, 21 Juni 1887. 이 편지에는 DD에 채택된 서사 시작품에 지불한 원고료와 관련한 다음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서사 시작품에 대한 최고 고료로 전지(全紙)(16면, 32단)당 160마르크를 지불해 왔습니다. 이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를 지불하는 잡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Wir haben bisher als höchstes Honorar für epische Dichtungen 160 Mark für den Vollbogen (16 Seiten, 32 Spalten) bezahlt - es ist sehr wenig, aber ich kenne keine Zeitschrift, die so viel bezahlt.>

50) 이 주장에 대한 전거는 프란초스가 DD의 발행인 자격으로 이 잡지의 기고작가에게 보낸 한 서한의 내용에서 발견되었다. Siehe I. N. 55. 7760: Kopierbuch der Briefe von Franzos vom 5. Feb. 1895 bis 26. Aug. 1896. (999 Blatt). S. 86. <.드라마를 게재해 주는 잡지와 게재해 줄 때 고료를 지불하는 잡지를 - 「독일문학」을 제외하고 - 나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Zeitschriften, die Dramen bringen, und wenn sie bringen, honorieren, sind mir, die “Deutsche Dichtung” abgerechnet, nicht bekannt.>

51) Adolf Wilbrandt: Von Angesicht zu Angesicht. Lustspiel in einem Aufzug. In: Deutsche Dichtung 1(1886/1887), S. 21ff.

- 이 잡지의 보수적 특성을 집어낼 수 있는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잡지들과는 달리 희곡문학을 위시하여 모든 문학장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 것도 - 프란초스의 무대문학작품에 대한 특별한 애정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도 - 이 잡지와 이 잡지의 발행인의, 문학장르와 기고작가들에 대해 각각 취했던 불편부당성을 보여주는 한 예일 수가 있을 것이다. 연극평론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잡지경영인의 입장에서도 그는 어느 한 편에 서려고 하지 않고 전통연극과 '새로운' 연극에 골고루 기회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1899년에 프란초스가 쓴 한 편지에서도 하우프트만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연극과 빌덴브루흐 Ernst von Wildenbruch로 대표될 수 있는 아류극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연극은 해마다 놓치지 않고 일일이 관람하였으며, 「독일문학」에도 꾸준히 그것에 관해 썼으며, 그 내용들은 여러 차례 중판(重版) 인쇄되었고 지금도 인쇄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불편부당합니다. 저는 젊은이들은 살리되, 늙은이들을 때려잡지 않습니다. 저는 하우프트만을 찬미하면서도, 빌덴브루흐를 무능한 작가로 여기지 않습니다.

Die Theater habe ich all die Jahre verfolgt, auch in der "Deutschen Dichtung" ständig darüber geschrieben, die Berichte sind vielfach nachgedruckt worden und werden es noch. Mein Standpunkt ist ein durchaus unbefangener; ich lasse die Jungen leben und schlage die Alten nicht tot; ich bewundere Hauptmann, halte aber auch Wildenbruch für keinen Stümper.⁵³⁾

프란초스의 연극에 대한 이해는, 투르젠예프 Turgenjew와 도스토예브스키 Dostojewskij 같은 러시아사실주의 작가들에게뿐 아니라 소재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프란초스에게도 영향을 끼친⁵⁴⁾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고골리에 대한 양가추방에

52) Adolf Wilbrandt: König Teja. Trauerspiel in fünf Aufzügen. In: Deutsche Dichtung. 35(1903/1904), S. 14ff.

53) I. N. 55. 761 der HWSLB: Kopierbuch der Briefe von Franzos vom 28. Aug. 1896 bis 6. Sept. 1899. (494 Blatt). S. 392f. Brief von Franzos an Oppenheim, datiert: Berlin, 9. Feb. 1899.

54) NFP의 문예란에 연재된 소설 『권리를 위한 투쟁』(각주 16번 참조)에 서술된, 지주계급인 폴란드 귀족들의 착취에 대항하여 봉기한 코삭족 농민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소재는 고골리의 소설 『타라스 불바 Taras Bulba』(1835)에서 취해진 것이다. 농민봉기를 주도하는 주인공 타라스 불바와 유사한 유형의 인물은 고골리에 앞서 이미 『미하엘 콜하스 Michael Kohlhaas』(1810)라는 소설에서 클라이스트 Heinrich von Kleist에 의해 형상화된 바가 있다. 프란초스의 『권리를 위한 투쟁 Ein Kampf ums Recht』이 NFP에 연재되기 8년 전인 1872년에 법철학자 예링 Rudolf von Jhering 교수에 빈 Wien대학에서 동일한 제목의 강연을 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s Recht』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다(범우 사상신서 14. 서울: 범우사. 역자: 심윤중).

서도 나타난다.⁵⁵⁾ 고골리와 그의 문학은 프란초스의 강연과 번역을 통해서 비로소 독일어권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고골리의 『검찰관 Der Revisor』이 독일어권에서 초연된 해가 1887년이었고 프란초스가 이 희극을 번역한 시기는 1877년 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관』의 번역을 끝내자마자 이 작품의 공연을 위해 노력했으며 1830년대 중반 ‘청년독일 Junges Deutschland’을 대표했던 5인 작가중의 한 사람인 하인리히 라우베 Heinrich Laube가 극장장으로 재임하던 빈 「시립극장 Wiener Stadttheater」에서 1878년 겨울시즌에 공연하기로 계획이 되었다. 프란초스의 유고에 남아 있는, 1878년 7월 28일자 라우베가 프란초스에게 보낸 짧은 서한이 이를 말해 준다.

친애하는 프란초스씨, 제가 『검찰관』을 언제 무대에 올리게 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은 그 고상한 기품으로 보아 지속적인 지지를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끼워넣기 공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색을 미루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중회장면을 제가 약간 줄일까, 삭제할 거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거의 손을 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제작에 들어가기 전이나 그 즈음에 당신을 빈에서 뵈기를 바랍니다.

Wann ich “den Revisor” auf die Bühne bringen werde, werter Herr Franzos, das ist schwer zu sagen. Vielleicht sehr bald. Er muß eingeschoben werden, da er seiner anständigen Natur nach kaum auf dauernden Halt rechnen kann. Den Druck brauchen Sie deswegen nicht warten zu lassen, denn ich werde kaum etwas streichen, höchstens in der Bestechungsszene ein wenig kürzen. Und auch das kaum. Hoffentlich seh’ ich Sie in Wien, ehe und wenn wir an die Inszenierung gehen.⁵⁶⁾

그러나 이 작품의 공연은 번역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좌절되었다. 『검찰관』의 번역대본을 프란초스는 1878년 12월에 라우베로부터 회수한다. <중회장면을 약간 줄일까> 거의 손을 대지 않겠다던 약속을 라우베가 지키지 못했고, 『검찰관』의 <중회장면>의 상세한 묘사의 삭제에 프란초스가 동의하지 않았음이 분명

55) 프란초스는 고골리의 문학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었다. 예컨대 1895년 3월 베를린과 프라하에서 당시의 「청년상인협회 Verein junger Kaufleute」와 「프라하 언론인 및 작가협회, 콩코르디아 Prager Journalisten- und Schriftsteller-Verein Concordia」에서 「고골리와 투르겐 예프 Gogol und Turgenjew」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기록이 남아 있다. Siehe “Deutsche Warte”. Berlin, 5. März 1896; I. N. 111. 385 der HWSLB: Brief von Heinrich Teweles an Franzos, datiert: Prag, 15. März 1896.

56) I. N. 64. 751 der HWSLB: Brief von Heinrich Laube an Franzos, datiert: Carlsbad, 28. Juli 1878.